

## 학생회비 선택납부제 실시

###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납부율, 41.36%

매년 입학시마다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것(학과마다 금액이 다름, 학교 학생회비)'과 '등록금과 함께 납부되는 것(1만원, 총학생회비)' 두 가지의 학생회비가 있다. 전자의 납부방법은 학생 개인인사에 따라 납부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등록금에 포함되어 매학기 납부되었다. 하지만 이번 2학기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생회비 선택납부'가 실시되었다. 전민우(학생지원팀) 주임은 "교육부에서 '학생회비 선택납부'에 관한 공문은 2007년도부터 매해 전달됐다. 이에 대해 2011년도부터 학교와 총학생회가 이야기해왔다"며 "사실상 2013년 1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했지만, 한 학기 더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와 총학생회의 동의하에 2학기부터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분리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회비 선택납부' 실시에 따른 2학기 학생회비 납부율(8월 전산 기준)은 완납자(분할납부 예정자 제외) 6,726명중 2,782명이 납부(41.36%)하였다. 이번 학기 교내 재학생은 약 6,890명으로 분할납부 예정자를 감안

해도 학생회비 납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납부율을 통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와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A학생(익명 요구)은 "학생 복지 사업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 혜택을 받는 것이 많아진다면 낼 의향이 있다"고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회비는 어디에 쓰일까? 학생회비는 각 공개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와 단체 학생회(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에서 사용한다.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모든 행사와 사업에 학생회비가 쓰이는 것이다. 주된 행사에는 '단체제전, 낙산제전, 대동제' 등이 있고, 사업에는 '야식배부, 프린트사업, 각 단체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다.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복지사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

다. 하물며 학생회비 납부를 저조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존폐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김진호(컴공 4) 총학생회장은 "대동제 규모의 큰 행사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과 행사가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로 사용된다. 이번 학생회비 납부율 저조로 고민이 많다. 다른 대학교들의 방안도 있지만 우리학교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타 대학을 모범으로 삼되 학교 실정도 생각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예산부족으로 이번 가을 축제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 그대로 이번 학생회비 선택납부에서 학생들의 절반가량이 학생회비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선택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듯이 이로써 생기는 불편은 학생들 본인의 몫이다. 하지만, 학생회를 믿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도 있다. 학생회 측에서도 학생들이 학생회비 납부를 평범한 납부가 아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을 마련해야 된다.

#### 학생회비 납부 관련 안내문

평소 학교에 열중하시는 한성대학교 학생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학부모임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2013년도 29대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진호입니다. 특별히 응대하고 더할 나위 없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할당의 유익과 축제로써의 가치 두루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일이 찾아 댈 수 없고 이렇게 서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3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과 함께 분리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학부님들 그리고 학부모임들께 부득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3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등록금 고지제 통합고지가 되었으며 1학기 신입생 대상 '체대기 재도 폐물처리'와 1학기, 2학기 학생회비 납부비율 향상을 위하여 선택납부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부득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회비의 용도 및 인준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학부님들께서 납부하시는 10,000원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총회, 사회과학대학총회, 예술대학총회, 공과대학총회의 각 학과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사용되는 학생회비가 참여하는 축제 혹은 자원봉사,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총동아리사업, 무료 프린트, 복사기 사업 등)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인문대)명령, 명사추진사업, 취업실용역사 발행 등 관련 학부님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학부 여러분들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일 때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행태 및 세부사항에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및 학부모임들께서 자유롭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는 한성대학교 학부님들 및 학부모임들,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은 학교생활 이후 지금까지 개인적인 일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디 학부님들 본인과 학부모임들의 자재분류에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원활한 학생회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학생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29대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진호 드림

▲ 학생회비 납부 관련 안내문입니다.

## 사라진 2학기 축제



▲ 작년 2학기에 진행한 낙산제 중 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모든 대학교가 개강을 했고, 방학 동안 잠잠했던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제 각 대학들은 축제를 준비하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에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 본래 우리 학교는 1학기 대동제, 2학기 낙산제(주최하는 기구에 따라 이름이 다름)로 일 년에 총 두 번의 축제가 열린다. 주로 2학기에 열리는 축제는 총학생회(총학)가 아닌 단체 연합이나 특정단체의 주도로 주최된다. 작년 2학기에는 4개의 단체(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의 학생회가 낙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2학기에 축제가 개최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일까?

송해원(무역 2)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열린 세 번의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축제를 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승이(멀티 1) 학생은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를 못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내년 2월에 종합관이 착공되면 사실상 운동장에서는 축제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진호 총학생회장은 "운동장이 없다는 건 무대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주위를 도는 페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단, 주정이 사라지고 축제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진행할 수 없지만 무대행사를 제외하고 장외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일정치 않다. 적으면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축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호 총학생회장(컴공 4)은 "축제가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학기 때부터 학생회비가 선택납부로 바뀌면서 2학기에 납부된 학생회비가 약 40%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일정치 않다. 적으면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축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축제가 열리지 않는 대신 총학 측은 오는 23일부터 열리게 될 낙산제전을 크게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낙산제전을 진행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으로 총학은 소규모 행사 퍼레이드 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축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총학은 좀 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변경

지난 7월 1일 '구내식당(매점 포함) 위탁운영업체(위탁업체) 선정'이 미래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미 지난 5월 16일 총무인사팀에서 진행된 현장 설명 등록에, 총 10개의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입찰 방법은 공개일반경쟁입찰(입찰)로 진행되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의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학교 소재지상 분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관공서 또는 대학의 구내식당을 일괄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업체 ▲현장설명에 등록하고 참여한 업체이다.

입찰 과정은 입찰 자격조건을 만족한 5개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진행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방

감산(총무처장)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회의를 거쳐 진행됐다. 심사결과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주) 정오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조윤철(총무인사팀) 팀장은 " 그동안에 운영된 학생식당에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불만은 '학식 메뉴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식권 발매시 매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맛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식당과 비교했을 때, 학생식당의 이용비율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주) 정오 아카데미'는 「고객이 만족하는 식사」를 운영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학식업체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메뉴가 단조로우 선택의 폭이 좁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메뉴의 다양화를 진행했다. 또한, 식권 발매시 매점을 이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식권 무인 발매기도 설치했다.

남기원(의생학 1) 학생은 "메뉴가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식권 무인발매기가 설치된 후에 식권을 구매하는데 편리함을 느꼈다"며 "분식메뉴가 없어진 점과 이전 구내식당에 비해 가격이 올라간 점이 아쉽다"고 변화한 구내식당에 대해 평가했다.

구내식당 업체가 변경됨으로써, 그동안에 제기되어온 불만을 잠재워줄 양질의 학식을 기대해본다.

김서현 기자 fmd486@hanmail.net

#### 지면안내

- 2 취업·창업 페스티벌 개최 공개기부 성반기 감사결과 발표
- 3 페이스북, 대세는 이벤트 페이지?
- 5 높아지는 한국 저작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
- 6 공유한 지향하면 카페프렙?
- 7 선선한 가을 감성을 자극할 독서이야기

#### 학생회소식

총학생회 낙산제전 9/23~10/11  
총대의원회 대의원회의 9/16

- 윤지는 13학년  
• 문화부 기자
- 오그림 12학년  
• 문화부 부장
- 김근영 12학년  
• 사회부 부장
- 한재원 12학년  
• 학술투 부장
- 신동석 12학년  
• 취재부 부장
- 정시경 12학년  
• 부편집국장
- 김현섭 10학년  
• 편집국장
- 현정은 12학년  
• 취재부 기자
- 김서현 13학년  
• 취재부 기자

## 빨로 뛰는 열정, 다음은 당신입니다

### 한성대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지원자격 : 13학년 재학생 (인문대, 사회대, 예술대, 공과대 학생 모집)
- 모집분야 :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기자혜택 :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기자 인증서 발급
- 선발전형 : 입사지원서 작성 후 면접
- 문의사항 : 02)760-4186 / 010-3406-2237 정시경 부국장 / kyung@hansung.ac.kr

# 2013년도 취업·창업 페스티벌 성공리에 개최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래관 지하 1층 DLC로 로비와 회의실, 스티디 라운지에서 취업·창업 페스티벌이 열렸다.

3일 동안 진행된 주요 행사에는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기업체 채용상담부스, 기업체 채용 설명회, 창업특강 및 창업 멘토링,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진행하는 1:1 실전 모의 면접 등이 있었다.

취업·창업 페스티벌은 전국적인 하반기 채용시장에 대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승식(취업·창업 지원팀) 담당자는 "참여기업들의 스케줄 및 사정 등으로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행사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더 취업과 창업에 관심을 갖고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사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기본 프로그램은 지난 해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행사기간이 하루 연장되었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업



▲ 취업·창업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리본커팅식이 진행되는 모습

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업체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에는 넥스타이어, 샘표식품, 한솔CSN, 현대홈쇼핑,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었다.

또한, '지문인식검사', '취업타로', '증명사진 촬영', '물렛을 돌려라', '특강 후 추첨' 등 학생들의 이목을 끌만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희나(의생활 1) 학생은 "1학년이라 취업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

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취업과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내년 행사에는 채용설명회 시간이 조정되길 바란다. 학생들의 시간표를 고려하여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취업·창업 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

김서연 기자 fmd486@hansung.ac.kr

# 2013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발표돼

지난 9월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2013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방학 중에 진행된 이번 감사는 공개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 연합회)와 각 단체인(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공과대학)의 학생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규화(경영 3) 감사1국장, 김승리(의예 4) 감사2국장, 국원 3명으로 총 5명이 이번 감사에 참여했다.

성규화 감사1국장은 "감사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내용은 회계 감사와 사업, 공약 감사다. 회계 감사는 영수증과 장부를 일치하는지 대조했고 사업, 공약 감사는 사업계약서와 공약이 일치하는지를 감사했다. 또한 공문 등과 같은 기타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했는지도 감사했다"고 이번 감사기준에 대해 말했다.

회계 감사와 사업, 공약 감사 이외에도 감사 서류 제출이 기한을 지나면 경고 조치 받게 된다. 이번 감사의 서류 제출은 총 3차례로 진행됐으며 감사 시행 규칙에 따라 경고가 다르다. 1차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고 1회를 받으며 2차에 제출하지 않으면 단위 예산의 5%를 환불함과 동시에 경고 조치한다. 3차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단위 전체 예산을 100%환불조치한다.

이번 감사 결과 조치는 주의가 2회

일 경우 경고 1회로 간주되며 경고가 3회일 경우 단위 예산의 0.5%를 환불조치하고, 이후 경고가 1회 증가할 때마다 0.5%씩 환불금액이 증액된다.

이번 감사에서 총학생회는 경고조치 2회만을 받아 환불할 금액이 없다. 경고 4회를 받은 총대의원회는 단위 예산의 1%인 93,267원의 환불을 통보받았으며 학생복지위원회는 총 경고 3회를 받아 단위예산의 0.5%인 19,242원과 미사용금 42,000원 총62,242원을 환불조치를 받았다. 졸업준비위원회는 경고 2회로 환불 금액이 없었고, 동아리연합회는 미사용금 32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인문대 학생회는 경고 3회로 인하여 단위 예산의 0.5%인 21,930원의 환불을 통보받았다.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경고 3회로 인하여 단위 예산의 0.5%인 20,7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예술대 학생회는 경고 2회로 이번에는 환불금액이 없다. 경고조치 2회를 받은 공과대는 미사용금액 440,000원만 환불을 요청받았다.

환불 조치된 금액은 쌓아두면 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공개기구 예산으로 다시 배분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간추린소식

### 수시1차 지원을 지난해보다 상승해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2014년도 수시1차를 모집했다. 총 모집인원은 701명이고 지원인원은 1만 4,431명으로 20.5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272명이 더 지원하였고, 지난해 경쟁률인 20.17:1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이번 수시1차 전형별 경쟁률은 '실기우수자' 전형이 42.42: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정원내·외'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경쟁률을 0.25:1로 끝나 정원수를 채우지 못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공적성우수자' 전형은 26.01: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원학생 전체 2/3의 학생이 지원했다. '전공적성우수자' 전형 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교내에서 실시하게 된다.

### 제1회 대학과 지성 장학금 수여식 진행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낙산관 대강당에서 '대학과 지성(이하 대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대학과 지성 수업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수여식을 진행한 강신일 총장이 첫날 강담 무대 위에 올랐다. 장학금은 정희도(의생활 1), 박지은(에니 1), 김정규(영어영문 1), 김다연(지정 1) 4명의 학생이 수여받았다.

대학과 지성은 필수교양 과목으로 매주 다른 교내 교수가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대학과 지성은 각 학기마다 예술대·공과대(1학기), 사회과학대·인문대(2학기)로 수업이 진행된다. 대학과 지성 장학금은 교수들이 교재를 만들고 받는 저작료를 2011년부터 기부적립하여 조성되었다. 일정한 정도 적립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대학과 지성 수업의 성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 생활, 가정 형편, 학과 순회 등이다.

### 제9회 공학경진대회 개최 예정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공과대학에서 주최하고 공과교육개발센터에서 후원하는 제 9회 공학경진대회가 낙산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작품 37개, 논문 2개로 총 39개가 출품되었다. 지난 대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팀원을 5명까지로 제한한 것과 협찬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올해 협찬사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GS건설 등 총 10개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협찬상이 더 많아졌다.

양정아(공과교육개발센터) 연구원은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학생들이 잘 따라 주었으면 한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은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심사할 때 상세한 설명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26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27일은 10시부터 4시까지 전시장이 개장된다. 개회식 및 축하 다과회는 26일 3시에 진행되며 27일 2시에는 시상식이 열린다.

## 알립니다

479호 ▲ 한성대신문 479호(9월 2일자) 2면에 실린 "한성대, 등록금 의존율 1위"와 관련하여 익명의 학생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성대 신문 479호(9월 2일자)에 실린 '한성대, 등록금 의존율 1위는 제목만 보았을 때 우리학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지만, 기사 내용 중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가 기준인 것이 옳지 않은 정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알아본 결과, 지난해 교내 재학생 수는 약 7천명으로 1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정보도를 알리고, 인터넷 신문 '뉴스시스(newsis)'에 있는 통계치를 주의 깊게 알아보지 않고 인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등정란

황기태(컴퓨터공학과) 교수 황 교수는 지난 7월 26일 『명품 C++ 프로그래밍』(생능 출판사)을 발간했다.

## 제18기 앰버서더 결연식 열려



지난 13일 미래관 DLC에서 제 18기 앰버서더 결연식이 진행됐다. 이번 결연식에서 30명의 한국인 학생들과 3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짝을 이루었다.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11월말까지 짝을 이루어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 2년 연속 수상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Red dot design award) 2013에서 한성대 제품 디자인과 학생들이 'best of the best'를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본교 학생들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재건(휴학생), 정희영(제품 3), 소병현(제품 3), 임주영(제품 3), 이호민(휴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는 'IF(International Forum)',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불린다. 팀원 중 한명인 정희영 학생은 "20번도 넘게 여러 대회에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UP & DOWN'은 소주박스를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기존의 소주박스는 30명의 소주가 들어가나, 본 작품은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 50명이 들어갈 수 있다. 정희영 학생은 "기존 박스의 파티션들이 만나는 교차점



▲ Best of Best를 수상한 학생들의 모습 왼쪽부터 유재건, 정희영, 소병현, 임주영, 이호민 학생

부분에 소주를 거꾸로 꽂는 것이다. 적은 화물차로 더 많은 양의 병을 옮길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있다. 또한 소주를 많이 옮기는데 있어, 시야 확보에도 용이할 것"이라 전했다. 이렇다보니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실용성이다. 그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요소에 중점을 맞추어 디자인 했다"고 덧붙였다.

눈길 가는 점은 팀 내의 학년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희영 학생은 "공모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방학 때 학교에 자주 온다. 과의 규모가 작아서 서로서 잘 아는 상태이고, 이

야기하기도 쉬웠다"고 말했다. 수상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얻은 것은 아니었다. 이번 출품작은 '2012 IF' 디자인 어워즈에 출품했으나 낙방한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낸 것이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즈를 위해 준비는 율학기초부터라고 밝혔다.

정희영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 했다. IF나 IDEA같은 다른 세계적인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하고 싶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 제 3회 독서경진대회

"학술정보관에서 지성인을 찾습니다."

독서력 향상을 통해 창의적이며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술정보관에서 제 3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접수기간 : 2013년 7월 22일(월) ~ 10월 20일(일)

대회일시 :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4시

접수 및 기타 세부사항 : 학술정보관

Hansung University

# 페이스북, 대세는 이벤트 페이지?

20대라면 페이스북(페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어디 20대 뿐일까. 10대, 30-40대도 페북을 활발히 이용한다. '소셜 배너'에 따르면 작년 국내 페북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전 인구의 14.4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만큼 우리는 페북의 위력을 간파할 수 없다. 페북은 자신이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를 누른 게시물이 친구들의 타임라인에도 뜨게 한다. 이로써 페북의 인기 게시물은 가입자들에게 광역적으로 신속하게 공유된다. 이러한 페북의 속성은 많은 트렌드를 일으켰다. 특정 말투나 풍자가 페북을 통해 하나의 유행을 만들기도 했으며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찍은 '몰래카메라'가 퍼져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페북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바로 '이벤트페이지'의 증가이다. '페북 페이지'는 회사, 조직 및 브랜드가 자신들의 소식을 공유하고 사람들 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북 고유의 기능으로 개인 타임라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브랜드의 페이지의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그 브랜드의 소식을 뉴스피드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벤트페이지'는 페이지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개발된 것이다.

응모방법이 적힌 이벤트 게시물을 올린다. 응모방법은 대부분 해당페이지와 게시물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은 친구들의 뉴스피드에도 뜨게 된다. 이로써 이러한 응모방법은 해당 이벤트페이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페이지는 응모한 사람들 중 추천을 통해 당첨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응모방법이 간단하고 손쉬우나 경품이 푸짐하므로 게시물을 유심히 접한 사람들은 웬만해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경품은 모자, 옷, 시계, 반지 등 다양하며 페이스북의 가장 두터운 사용연령대인 20대가 특히 좋아하는 상품들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페이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까? 이벤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아 운영되거나 종종 관리자의 사비로 운영되기도 한다. 18만개 이상의 '좋아요'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 페이지 '독템'은 이러한 이벤트페이지 중 하나이다. '독템'의 관계자는 운영하

게 된 동기에 대해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이 고생해서 만든 카카오톡을 왜 무료로 배포했는지 궁금증을 가졌었다. 그러던 중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뭉치면 이기고 성공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나만의 페이지 커뮤니티 팬을 모으기 위해 '독템'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를 위한 '투자'를 하기위해 시작했다. 때문에 사비로 운영을 하였다. 지금은 페이지가 커짐에 따라 제휴업체, 협찬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독템'에서 상품을 탄 사람들은 100명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벤트페이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명 '사기 이벤트페이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기 이벤트페이지'는 이벤트페이지처럼 행사하지만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첨자를 발표해 놓고 잠적을 해버리거나 미리 함께 말을 맞춘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브랜드 제품의 사진을 도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벤트페이지에 무작위로 응모하기 보다는 페이지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이벤트페이지를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만 이용한다면 보다 나은 SNS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지구촌 이슈

### 일본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2020년 제 32회 하계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 125차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일본 도쿄를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 도쿄와 경쟁한 최종 후보 도시로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며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을 열었다. 이후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열며 아시아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개최

했다. 일본은 더불어 198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이번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통산 4번째 올림픽을 열게 된다. 도쿄는 영국 런던(3회),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다섯번째로 하계올림픽을 2회 이상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한편 이번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정성을 앞세워 IOC위원의 표심을 이끌어냈다.

### 나치 전범 92세 노인 법의 심판대의 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무장친위대원(비켄 SS요원)으로 활동했던 92세 노인의 재판이 진행됐다. 네덜란드 출신의 독일인 제베르트 브루인스는 전쟁기간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경 지역에서 네덜란드 레지스탕스 요원 1명을 사살한 혐의로 독일 하켄법정에서 2일(현지시간) 재판을 받았다. 브루인스는 나치에 협력한 댓가로 1943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종전 후 1949년 결석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징역형을 피하고자 독일로 도망쳤고, 자국민 보호 규정에 따라 독일은 네덜란드의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브루인스는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

에서 유대인 2명을 사살했다는 혐의로 독일로부터 1980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브루인스의 변호인은 "그는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데다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브루인스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독일에서 90대 노인이 나치전범으로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2011년 폴란드의 유대인 강제수용소 간수 출신 존 데마누크(당시 91세), 지난 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간수 출신 한스 리프시츠(93세)가 법정에서 선 바 있다.

### 미야자키 하야오감독 은퇴 공식 선언해

이번 달 6일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72) 감독이 은퇴를 공식 선언 했다. 미야자키 하야오감독은 "그 동안 몇 번의 은퇴 소동을 일으켰었지만 이번엔 진짜다"며 "나이가 들수록 작품의 제작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보통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대로라면 회사가 위태로워 질 것이다"고 은퇴이유를 밝혔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지브리 미술관을 관리하며 지낼 것이다. 앞으로 지브리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작품

의 대본 작성이나 자문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미야자키 하야오감독의 은퇴선언은 세번째다. 1997년 <원령공주>를 발표한 후 은퇴선언을 했다가 4년 만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2)로 복귀했다. 그 후 "은퇴는 하지 않겠다"고 은퇴 선언을 했지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6)을 연출한바있다. 그러나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감독은 마지막 작품이 될 <바람이 분다>로 제 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노리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발령 피해방지대책은 어떠한가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추서에 생길 소비자 피해를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가 내려진 분야는 택배,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로 각각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택배는 추석동안 배송이 밀리기때문에, 수령자에게 직접 인수를 하지않아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말했다. 또한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택배가사기 바쁘다는 이유로 상품이 엉망인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택배 접수 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큰 품목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히 포장한다. 또한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주의를 부탁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추석 때 친인척, 지인들과 주고받는 추석선물세트 또한 경제대상이다. 과대포장으로 많이 많은 추석선물세트는,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 상품 등이 적정



▲ 추석을 맞이한 시장의 모습

한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세트라고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니다. 선물세트 가격이 날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이 점에 유의하라고 공정위에서는 전했다. 최근에 소셜커머스의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기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묘지관리업체의 관리 소홀로 묘지 잔디가 벗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별초 서비스를 예약한 뒤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야 한다.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전의 전후 세부 사진을 요청하여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미리 피해를 방지하여 다가오는 명절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 그때 그 사건

### 전태일 분신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낙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기바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낙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다.....”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 거리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근로기준법 책을 끼고 분신하기 며 달 일기에 쓴 글이다. 1970년 11월 13일 젊은 재단사 22살의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3만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하다 어머니 이소산에게 이 일을 계속해 줄 것과 친구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한 뒤 사망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영래 저

『전태일 평전』(2009년 신판 1쇄, 돌베개)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를 읽고 나는 비로소 불쌍한 내 형제, 어린 동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시다,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옷 만드는 일의 보조로 실밥을 듣거나 하면서 평화시장에서 일하고있던 발육이달린어린노동자였다. 사실 재단사는 의복제조 과정에서 가장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요즘 말로 하면 팀장에 가깝다. 그 아래 미싱사, 시다가 재단사가 옷감을 재단하면 그 때 일을 한다. 전태일이 그냥 당시 재단사로서 월급 받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어린 노동자 동생들 딱한 사정을 그냥 외면했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태일은 16세 때 평화시장에 시다로 들어와 일을 하기 시작했고, 미싱사를 거쳐, 재단사가 되었다. 경력이 6년이었다. 그는 미싱사, 시다에게 전절하였다고 한다. 분신 전 당시 전태일이 노동청장 앞으로 보냈던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근로조건 개

선진장'에 따르면 대부분 남자인 재단사 1천2백 명은 임금이 월 3만원, 전체가 여성인 미싱사 1만2천명은 월 1만5천원, 나이 어린 소녀시다는 13세부터 17세로 1만 2천명이 월 3천원으로 나와 있다. 사람들은 당시 차한 잔 값이 50원으로 시다 일당이 5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일은 어린 소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느라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라. 야간작업을 위해 잠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사를 야간작업을 한 뒤 눈만 멀뭇멀뭇 석상처럼 앉아서 손을 놀리지 못하는 시다를 보고, 그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피를 토한 여공을 데리고 병원 문을 두드린 전태일. 자신의 처비로 배고픈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먹이고 자신은 걸어 다녔던 전태일. 그로서는 16 미터의 먼지구멍이 작업공간에서 밤새 일을 해야 하는 어린 동생 시다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제 때

유관순이 감했던 서대문형무소에 가보면 자신의 키보드 작게 감옥을 만들어 그 안에서 지내게 했다고 한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등으로 돈을 벌며 동생들과 부모를 먹여 살려야 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참으로 희한한 일은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인 전태일이 일기를 썼고 많은 기록을 글로 남겼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만났고, 노동청에 진정했고, 그러다 실문지 결과가 있으면 신문에 실어주기가 쉽다는 말에 설문지도 돌렸다. 그러나 전태일은 이 일로 이미 업계에서 찍혀 삼각산에서 막노동용 하며 돈을 벌었다. 그러다 돌아온 것이다. 어린 동생들 곁으로 죽을 결심을 하고, 그의 여동생은 살아남아 유학 가서 영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제목이 They are not machine 이다.

우혜전(칼럼니스트)

## 낙산만평

안익영 (애니 4)



# '근거 없는 자신감'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교단에서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나를 믿어 달라고 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자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신감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쉽다. 목소리나 표정 중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발표할 내용이 박수를 받기에는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 있는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자신감이 없어 한다는 이유 한 가지로 교수나 다른 학생들은 그 발표를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그러한 현상이 습관화된 경우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통

해 더욱 자신감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경우도 있다. 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나는 잘한다. 나는 탁월하다." 이런 의미로만 사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이란 오히려 '내가 앞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 한다"는 의미의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은 조건적이다. 즉, 쉽게 흔들린다. 언제나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말로 자신이 항상 잘하지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만일 가능성이 크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쉽게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같은 원리일 것이다.

반면에, '앞으로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의미의 자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의 자신감은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재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배우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약점을 아는 사람만이 주위의 충고를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칠 수 있다. 따라서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실 많이 비슷하다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힘들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주위의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도 가져야 할 이유이다.

## · 사 설 ·

###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온다. 추석의 맞이하여 소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길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고속도로들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무조건 고속도로만을 고집하기는 그보다 작은 길을 택한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전략적선택이 중요한 이유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리가 당면하는 선택의 기로에도 매우 다양한 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는 고속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버스만을 위한 중앙차로가 있는가하면 차량전용의 고속도로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도로들이 존재한다.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에도 많은 길들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에 가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도로들이 사방팔방으로 뚫려있다.

그뿐만이 요즘에는 보행인을 위한 산속의 등산로, 오붓한 올레길, 돌아돌아 가는 둘레길, 한적한 오솔길 등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길들이 있다. 이러한 길들은 각각 방향, 용도,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 나름의 쓸모가 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길은 많다.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다양성의 시대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2012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직업의 종류는 10년 전보다 1300여개가 추가되어 총 9298개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한다. 직업도 그처럼 다양해졌다.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

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당면한 미래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스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제는 스펙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점의 스펙은 수능을 중심으로 상당히 획일적이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스펙은 직업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략적선택은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조건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취향이 우선 다르고 그 취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조건들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 맞는 스펙이 있으며 둘레길은 둘레길에 어울리는 스펙이 있다. 고속도로가 행복이나 만족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전략을 세우고 자기의 길을 가야하는 이유이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특히 젊은시절의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전략적 선택은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개척하는 전략적선택이 중요하다.

## 현대 문명병: 디지털 치매



기자수첩

윤지은 기자  
(의생활 1)

혹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급히 연락할 일이 생겼을 때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혹은 아는 한자나 영어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주 연락하던 친구나 가족의 연락처가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다 ▲사람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친구와의 대화 중 80% 이상을 메시지, 문자, 이메일을 통해 한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버릇이 있다 ▲기념일, 생일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다 ▲전날 자신이 먹은 식사메뉴를 기억해 내지 못한 적이 있다 ▲어는 영어단어나 한자가 기억나지 않아 검색해본 적이 있다 이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디지털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치매'란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디지털 치매 환자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뇌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후,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 단기 기억에 저장하게 된다. 그 후 단기기억에 저장된 기억정보는 반복 학습 과정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디지털기기의 사용으로 외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반복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단기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한 정보들은 금방 잊혀지고, 결국은 디

지탈기기가 없이는 사소한 것도 기억 못하게 되는 디지털 치매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억력 세계 기네스 기록 보유자, 예란 카츠는 얼마 전 방한하여 "스마트폰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은 더 멍청해진다"는 말을 했다. 그는 첨단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점차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적 경향을 보이며 뇌를 퇴화시켜 가고 있다. 이렇다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디지털기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마트기술은 더욱 정교해져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 기술에 휘둘리기 보단 융통성 있는 '스마트 유저'가 되는 것은 어떨까?

## 블루이코노미, 친환경 성장을 위한 푸른 동력



낙산에 올라

정인성  
(무역 4)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의 방사능 사태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효율성과 저렴한 원가로 인해 각광받던 원자력 발전의 엄청난 위험성을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인류는 효율성과 원가절감이라는 것에 몰두해서 환경을 좌시하게 되었고,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인해 악화된 환경은 어느새 인류의 목을 조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블루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루이코노미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따라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블루이코노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파괴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비춰 볼 때, 인류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블루이코노미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유럽의 스웨덴은 환경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고,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필자와 최재혁·하진영(경영08학번)으로 이루어진 '양평테라블' 팀은 Hansung Success Frontier라는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주간 스웨덴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하마비 허스타드라는 친환경 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한 곳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투자와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블루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인 폴린건설이나 르반데 필터에 방문해서는 블루이코노미가 어떤 식으로 사업에 적용되어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다. 환경보호에 치중해 수익창출구조에는 취약했던 기존 친환경 경제체제와는 달리 블

루이코노미 체제를 이용한 사업은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 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친환경 건물을 짓는 건축가인 나이퀴스트와 울기를 만나서는 스웨덴인들의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캠페인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 특히 블루이코노미에 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블루이코노미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비의 자율성, 좋은 선택

이전부터 요구되어온 교육부의 학생회비선택납부가 올해 우리학교에서 시행되었다. 1학기 신입생 대상 '새내기 새로 배움터비'와 '1학기, 2학기 전체 학생대상 학생회비' 항목이 선택항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학생회비의 자율화로 학생들은 회비를 지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일반적으로 학생회비는 각 공개기구(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등)와 단과대(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공과대학) 학생회의 각 학기 예산으로 편성된다. 회비 사용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와 체전행사,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교육향상사업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에 사용된다. 이는 재학 또는 휴학 중에도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에 제반 비용을 준비하는 예산이다.

그렇기때문에 학생회비가 견지하지 않는다면, 학생회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것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간혹 축제와 같은 큰 행사에는 재단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학생회비가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학생회가 학생회

비를 사용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학생회의 불투명한 사용 때문에 학생들의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학생회는 투명성 있게 돈을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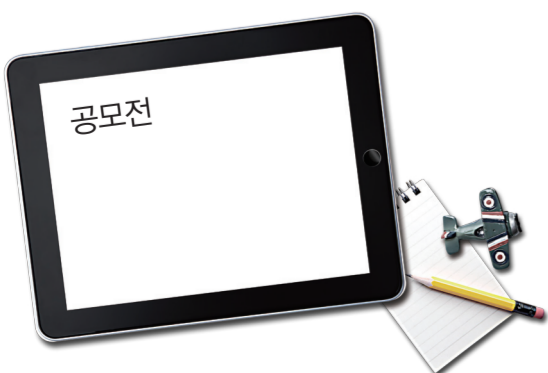
학생회 측은 학생들에게 1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사용내역을 전체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

학생회가 회비 사용내역을 계속해서 숨기게 된다면 학생들은 더욱 더 학생회를 믿지 못할 것이며, 학생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율이 저조 할 수밖에 없다.

학생회는 학생회비가 분리 고지된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회의를 해야한다. 내년 총학생회장 또한 공약을 설정할 때 체계적이고 논리 있게 공약을 선정해야 한다.

교내 재학생 7,000명이 만원씩만 내도 7천만원의 거금이 모인다. 이 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만 학생들은 더욱 더 학생회비를 낼 것이며, 학생회를 신뢰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회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공모전 소식



### 한강유역환경청 2013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 ▼

공모주제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한강/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한강/ 오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강

공모기간 : 2013년 9월 7일~9월 20일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출방법 :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작품 파일 업로드 (인터넷 접수)

작품규격 : 2,560pixels x 1,920pixel (픽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상금 : 대상(1명)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금상(2명)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은상(4명)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및 상금 50만원, 동상 6명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및 상금 20만원, 가작(8명)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및 상금 10만원, 입선(20명)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및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국제교류 UCC 공모전 ▼

공모주제 : '내가 체험한 국제교류'를 소개하는 창작물,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소개하는 창작물, 대한민국과 타국과의 상호이해 및 우호친선 증진에 기여하는 소재 및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

공모기간 : 2013년 9월 9일 ~ 10월 11일 18:00까지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 / 개인 또는 팀별 참여가능(팀은 최대 5인으로 구성, 구성원 중 최상위 연령으로 부문 구분)

상금 : 최우수상(부문별 1편) 외교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부문별 2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 50만원, 특별상(부문별 1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 30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3 산업기술 사진&웹툰 공모전 ▼

공모주제 : 우리가 사는 세상속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나만의 독특한 스토리

공모기간 : 2013년 9월 5일 ~ 10월 25일

응모분야 : 사진 분야- 1인당 4컷 이내 스토리 구성 2작품 출품 가능(컷당 3M 이내) / 웹툰 분야- 1인당 1점 최대 8컷 이내 2작품 출품 가능(10M 이내)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상금 : 대상(사진 1작품, 웹툰 1작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사진 1작품, 웹툰 1작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사진 3작품, 웹툰 3작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사진 3작품, 웹툰 3작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및 상금 50만원, 인기상(사진 1작품, 웹툰 1작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및 상금 30만원

꿈의 대화

# 높아지는 한국 저작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인기 과장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 코너입니다.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이번 꿈의 대화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 꿈을 둔 학생들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총칭 생략)을 멘토 자리에 모셨다. 박인기 과장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뿐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외부강의와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멘토와 '꿈의 대화' 인터뷰 자리에 마주한 이호영(경영 2), 신용현(강원대 한문교육학 2) 멘티는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저작권 관련 분야의 직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특정한 직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지난 9월 11일 그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 회의실에서 만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티:** 저작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멘토:** 대학생 때 법학을 전공했는데, 여러 수업 중 저작권법 수업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 성적이 저에게 처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멘티:** 저는 경영학,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과 달리 저작권에 관련이 적은 전공인데, 저작권 분야의 직업을 모색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까요?

**멘토:** 저작권 분야의 일은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법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은 보다 유리하게 저작권 분야의 일을 이해하기 쉽겠지요. 하지만 굳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들은 그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관련 여러 분야의 논쟁이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 기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 기술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과를 나와서 전공이 무엇이든 모

든 분야에서는 저작권 관련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전공에 추가적인 저작권법 공부를 염두에 둔다면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내에 교육기관이 있기도 합니다.

**멘티:**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외에 저작권 분야의 다른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속해 일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멘토:** 한국저작권위원회 외에도 저작권을 다루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협회나 제작자협회 등 관리자들을 대변하는 약 12개의 집중관리단체(혹은 신작관리단체)도 있고, 단순히 대리, 중개일을 하는 약 700개의 대리중개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획사나 개별 저작물 제작회사는 회사 내에 저작권팀을 두어 자사내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송국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관팀이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부서(팀)가 없는 중소기업도 사원 고용 시에, 풍부한 저작권 지식을 가진 지원자는 충분한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티:** 평소 저작권에 관심이 많지만 어려운 법 용어와 복잡한 기준 등에 저작권이 때때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작권을 이해하는 것이 저작권 분야의 일 중 가장 먼저의 일 일터인데, 저작권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특정한 자격증이나 학사, 공부(자격)가 필요한가요?

**멘토:** 필수 자격증이나 학사는 없습니다. '저작권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있긴 하나, 자격증이 실무에 어느 정도 지표가 되어 득이 될 수 있지만, 없다고 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대학의 학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권은 분쟁을 조절하는 등에 있어 법률과 밀접

한 관계에 있습니다. 법학공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한 기반이 되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등의 가치관이 무엇보다 앞서 필요합니다.

**멘티:** 고용시장을 몇 년 앞두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저작권 분야의 취업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학력과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멘토:** 학벌은 애써서 석사, 박사과정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 분야의 기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같이 사원을 뽑아 곧바로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규인력보다 경력직을 필요로 하고, 때때로 어느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졸업 후에 바로 경력직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드뭅니다. 저작권 관련 부분에 있어 전문적으로 일했던 경력이 없다면 경험을 쌓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일 뉴스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관련 분야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변화하는 동향을 읽고 이를 스크랩하는 것입니다. 학회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듣고 보는 것도 소중한 스페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특히 어학이 중요해졌다. 한류진출이 중국 뿐 아니라 유럽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모두 알 것입니다. 영어는 필수적이라면 중국어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멘티:** 지금까지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멘토님은 어떤 꿈과 미래를 가지고 계신가요?

**멘토:** 미래에 대한 꿈이라면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성공은 과정과 같아서, 성공이란 목표를 두고 이를 노력해 다가간다면 그 과정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목표를 버킷리스트에 적어서 하나씩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두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기자:** 학생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부탁드립니다.

**멘토:** '개는 밥을 먹을 때 아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 잠을 잘 때 내일의 꼬리치기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불안한 취업시장과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걱정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시간 중 하루에 4시간동안 해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것을 꿈으로 발전시키면 훌륭한 미래의 당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인기 멘토와 멘티가 나누는 대화 중, 기사내용은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인기 멘토는 이호영 멘티의 꿈을 이루어 현재 성공적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멘토 또한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꿈꾸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간다면 박인기 멘토의 조언에 따라 과정이 곧 성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과정이 곧 현재의 성공이자 미래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 쉽게 쓰여진 시

그냥  
원대연(경영 4)

책을 보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  
그래서 그냥 눈 감았지

술을 마시다가 잔뜩 취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정신줄 놓아버렸지

학교 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냥 평평이 했지

출근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그래도 그냥 출근했지

너를 보다가 네가 너무 좋은거야  
그래서 그냥 고백을 했지

당신을 보다가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운거야  
그래서 그냥 뽀뽀했지

인생을 살다보니 인생이 너무 즐거운거야  
그래서 그냥 즐기기로 했지

인생을 살다보니 인생이 너무 힘든거야  
그래도 그냥 즐기기로 했지

### 사진이야기



이 사진은 개항길 하교길에 인형광화문에서 항공을 지날 때, 일하는 장면이 너무 이해서 찍었네. 불명예가 한강에 놓이든 장면이 정말 장관이네. 이학민(법학 3)

### 교직원을 만나다

'학생생활상담실'이라는 장소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중·고등 학생 시절 선생님에 의해 '소환'됐던 두려운 장소가 떠오를 것이다. 우리학교 우촌관 2층에도 '학생생활상담실'이 있다. 학생생활상담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장소가 아니다. 학생생활상담실은 우촌관 2층 사물함이 즐비한 복도에 위치해있다. 교육훈련 지원금을 신청했던 학생이라면 한번쯤 가봤을 것이다. 그곳에서 홍성미 선생님을 만났다.

상담실에서 홍성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양성평등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이성문제와 대인관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를 역시 진행하고 있다.

홍성미 선생님은 "주로 학생들이 학습에서의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담실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심리적 부담감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상담' 자체에

## '한성인의 해우소'

### 학생생활상담실의 홍성미 선생님을 만나다.

큰 부담을 느낀다. 상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선뜻 상담실로 발걸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홍성미 선생님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한다"며 "심리검사와 상담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이다"고 말했다. 이어 "거울을 안보면 부정적인 상상이 커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거울에 비춰보면 해결방법이 있고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성미 선생님은 1997년 9월부터 현재 까지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 홍성미 선생님은 예전에 학부모 시절에 상담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인이 된 지금 상담실에 찾아와주는 학생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생활상담실은 언제나 열려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홍성미 선생님은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성미 선생님의 모습

학생생활상담실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찾아가면 상담을 받을 것이다.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SNS에 올려도 해결되지 않고 어디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꼭 학생생활상담실을 찾길 바란다. 학생생활상담실을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상담 후 상담실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울 것이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COPYLEFT

<카피라이트나 카피레프트나 그것이 문제로다 ②>

## 저작권(Copyright)만 반대하면 카피레프트(Copyleft)인가?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블로그·카페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전면 부정한 움직임인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위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포털·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사진·동영상·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신문·방송과 같은 일방향 소통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제작자가 되는 동시에 전달자의 역할까지 수행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용자는 저작권을 이유로 컨텐츠의 다운로드, 업로드를 제한 받기도 한다. 그리고 제작자는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해진 만큼 불법공유, 무단 공유라는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이용자를 위한 자유로운 공유나, 제작자를 위한 권리를 인정하느냐를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로 저작권(Copyright)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면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저작권을 초월하려는 움직임을 등장시켰다.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다.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복제·수정·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Copyright)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소유(所有)를 반대하고 저작물의 공유(共有)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이다. 저작물의 사용·복제·수정·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의 전개**  
카피레프트운동은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뜻하는 것으로 1975년에 시작된 바 있다. 1970년대 미국 MIT에서는 컴퓨터 연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유롭게 공유할 수



## copyleft

정·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Copyright)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소유(所有)를 반대하고 저작물의 공유(共有)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이다. 저작물의 사용·복제·수정·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기존의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대항해 사회적 공익을 강조하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때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을 거부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계의 카피레프트 운동은 공개운영체제인 '리눅스'를 탄생시켰다. 리눅스는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가 유니스를 기반으로

있었다. 당시에는 상업적 컴퓨터 회사조차도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와 독점을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자유로운 공유를 추구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MS와 같은 소프트웨어 소유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컨텐츠가 제작되고 공유된다.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은 블로그·카페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컨텐츠의 게시와 공유를 유도한다. 유튜브(YouTube) 역시 최대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로 전 세계인이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은 카피레프트를 지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러한 공유의 패러다임 이면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역시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무단공유와 수정·재배포가 가능해져 저작권 침해

개발한 공개용 오픈레이팅시스템(OS)이다.

리눅스는 소스 코드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5백만 명이 넘는 프로그램 개발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단일 운영체제의 독점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개라는 원칙하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변종 리눅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카피레프트 운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 운동단체들을 통해 카피레프트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공유(共有)만 지향하면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공유'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며 원작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해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리눅스의 변종 출현처럼 컨텐츠가 다양한 이들의 손을 거쳐 계속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컨텐츠가 제작되고 공유된다.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은 블로그·카페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컨텐츠의 게시와 공유를 유도한다. 유튜브(YouTube) 역시 최대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로 전 세계인이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은 카피레프트를 지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러한 공유의 패러다임 이면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역시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무단공유와 수정·재배포가 가능해져 저작권 침해

해사레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포털들은 '오른쪽마우스 클릭금지'와 복사 시 '자동 출처 붙여넣기 기능' 등을 추가했다. 유튜브는 업로드 되는 동영상의 저작권에 따라 업로드를 취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를 지향하면서도 공유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단공유·불법복제'를 지양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이 저작물을 지나친 규제 없이 이용하고, 수정·보완 가능하며 더 나은 저작물을 탄생시켜 인류의 지적창작물과 문화발달에의 기여를 추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제인 것이다.

**'공정이용(Fair Use)'의 움직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공유를 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임은 명백하다. 이는 카피라이트 뿐만 아니라 카피레프트 역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을 하려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박인기(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과장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이다.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나라 또는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 임박·행정을 위한 연구,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사용하거나, 시사 보도나 방송, 논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 등을 공정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CCL의 등장과 카피레프트**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짐에는 변함이 없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마음껏 저작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피레프트 운동가들이 CCL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CCL조차도 부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CCL이 카피레프트 운동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양날**  
지난 호와 함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살펴본다.

인쇄술의 발달은 카피라이트를 출현시켰고, 컴퓨터의 발달은 카피레프트를 출현시켰다.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발달로 카피라이트는 더 중요해졌고, 그만큼 카피레프트 역시 중요해졌다. 이렇게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지나치게 카피라이트를 남용해 지적산물의 공유와 재창조를 막는 것이 인류발전을 저해한다. 반대로 카피라이트를 무시한 무단공유와 불법복제 역시 창작을 위협하는 것이다.

양날의 칼날과 같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이 두 개념이 공존하느냐와 서로 칼날이 되느냐는 이용자와 창작자의 손에 달려있다.

한재원 기자 123647@hansung.ac.kr

### 다락방 책꽂이

이 구역의 미친X은 나야



『나는 조지아의 미친고양이』 /루이스 레나스 / 아침나라

제목부터 예상치 않는다. 사춘기 소녀 조지아의 일기를 보면 내용의 팔 할은 남자친구, 키스, 풋볼, 눈썹 뽑기, 팬티 등. '에그머니나!'라는 탄성이 나올 소재들이 가득하다. 무려 청소년 권장도서이자, 사춘기 소녀의 일기를 다룬 책인데 말이다. 하지만 만약 사춘기 소녀의 일기이니 오히려 납득이 간다.

조지아는 부모님 앞에서 쿨하고 이성적인 '어른 여자'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쿨함은 잠시뿐 친구들과 있을 때면 엉악없는 사춘기 소녀이다. 조지아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우스운 베레모를 좀 더 반항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한다. 돌돌 말아 뒤통수에 핀으로 고정하기도 하고 머리와 모자 사이에 도시락을 넣어서 스카프로 동여매기도 한다.

조지아가 하는 행동, 내뱉는 말은 정말 '말괄량이'의 표본이다. 반복되는 꼭 찬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답답하다면 이 책을 펼쳐야 한다. 미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조지아가 대신 '미친 짓'을 감행한다. 조지아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배꼽을 움켜쥐는 것은 읍선이다.

### IT한 소식

##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PC는 정말 사라질까?

### 모습만 바꿀 뿐 PC 역할은 그대로 유지

요즘 PC,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지리가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아닌 게 아니라 각 시장조사업체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7500~76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2분기 PC 출하량은 8530만대였다. 5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최근 상황은 더 나쁘다.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오는 4분기 태블릿 출하량이 8410만대에 달하지만 PC는 831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태블릿이 PC에 출하량이 역전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C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다. 특히 태블릿은 PC로 진행해야 했던 다양한 작업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특이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개인용 기기와 기업 업무 환경이 결합되는 '컨슈머이제이션'과 직원 개개인의 디바이스를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BYOD'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스마트 기기화로 인해 PC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여전히 PC 외에는 적당한 솔루션을 찾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크다. 업계에서 PC 감소세가 계속되더라도 제한적인 영역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언제 상용화될지 가능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다. 미래에 대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가능했지만 개인용휴대단말기(PDA)가 진화한 형태일지, 아니면 휴대폰에서 PC 기능을 얻게 될지 선볼리 예상치 못했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을 더한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 비해 3~4년 정도 늦게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대중화를 이뤘다. 3년만에 대부분의 휴대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거의 정점에 다다른 모습이다.

물론 형태만 바꾼다고 해서 그대로 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 시대로 하더라도 하루걸러 배터리 충전을 해야 하고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경험(UX) 측면이 부족하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다소 불편한 수고를 감수하면 얼마든지 스마트폰보다 풍부한 UX를 맞출 수 있다.

앞서 'PDA+휴대폰', '휴대폰+PC' 사례에서 보듯 스마트폰이 대권을 잡은 것에는 '음성통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후 테이터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웨어러블PC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면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충분한 납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수원 기자 shulee@ddaily.co.kr

###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 가을, 체중관리 비상!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가을엔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찌는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동물들이 체지방을 축적하는 건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날씬하고픈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는 전혀 반갑지 않다. 단지 체중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일 뿐.

식생활은 하나의 '습관'이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그 유명한 속담처럼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든 것이다. 단지 몇 주간 혹은 몇 달간의 피나는 굶주림으로는 절대로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즉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제거하는 '행동수정요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사실 1주일에 7킬로그램 감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감량 후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잘못된' 식사행동을 '올바른' 식사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체중조절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급격히 뺀 살은 요요현상으로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다.

다이어트를 위한 행동수정요법의 기본은 식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식사일기를 적을 때에는 먹은 음식의 종류 및 양뿐 아니라, 식사시간, 식사장소, 섭취의 목적, 식사 시의 공복정도, 식사 시의 기분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개선점을 찾아

야 한다. 무심코 먹을 때와는 달리 식사일기를 쓰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식생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기록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할 일은 자신의 식습관을 평가해 보는 것. 아침을 굶거나, 저녁 식사량이 아침이나 점심보다 많은 경우 나쁜 식습관으로 평가된다. 또 식사 간격이 일정치 않거나 너무 빨리 먹는 식습관도 고쳐야 할 습관이다. 라면이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거나 물보다 주스나 콜라를 선호하는 습관 역시 좋지 않은 식습관에 해당한다.

식당이나 식당에서만 음식을 먹지 않고 길거리나 거실, 침대 등 아무 곳에서나 음식을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이다.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그냥 손이 가거나 배가 불러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수저를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도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폭식하는 습관도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행동이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뒤늦게 물러드는 죄책감에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

자, 이제 자신의 식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으면 본격적으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 빠르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려면 오래 씹기, 입안의 음식을 삼키기 전에 다른 음식을 넣지 않기, 음식을 씹을 때 손가락이나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기,

식사 중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식사시간을 여유 있게 잡기 등 등의 방법으로 천천히 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물을 한잔 마시며 차분히 생각을 해 본다. 과연 나는 지금 배가 고프는가, 이 음식은 내가 지금 꼭 먹어야만 하는 음식인가. 이 음식은 열량이 얼마나 될까 등등.....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나 하나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다. 주변의 환경도 다이어트모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늦은 밤 TV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먹어대는 가족들 옆에서 그 유혹을 참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음식물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거나 식사장소를 식탁으로만 한정짓는 약속을 해야 한다. 또 음식을 되도록 작은 접시에 담아 먹거나 반찬을 개인접시에 담아 먹으면 눈으로 먹은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먹게 된다.

다이어트는 마라톤이다. 몇 주, 몇 개월의 다이어트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바람직한 식사행동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행동수정을 해야 한다. 절대로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이어트법, 바로 '행동수정요법'이다.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량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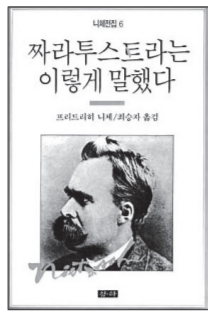
# Autumn,

## 선선한 가을 감성을 자극할 독서 이야기



지나가는 여름, 성큼 다가오는 겨울 그 사이 며칠간의 가을을 어느 계절처럼 느끼기에는 이번 가을은 너무 짧다. 가을하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속, 버버리 코트와 책이 아니던가. 무척 대고 '무슨 책을 읽지' 하며 큰 서점을 찾는 것도 좋지만 교내 학술정보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내 교수와 학술정보관이 추천하는 '한성 추천도서 68선'과 '각 분야별 다대출도서 목록'도 있으니, 당신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편집자주〉



기존 사고의 틀로부터의 해방

F.W.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강연에서 한 강사가 이러한 말을 했다. "자기계발서를 정말로 읽고 싶으면, 니체를 읽으세요. 모든 고민의 답을 내려줍니다." 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고전으로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니 자기 계발을 떠나 책 자체에 가치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서이다. 철학서이나 소설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자기계발서의 느낌을 주고, 문장을 곱씹어 보고 싶다면 시집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만큼 이 책의 매력은 다채롭다. 책의 구조는 짜라투스트라의 주장을 이야기 형식으로 담고 있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비유와 예를 통해 드러낸다. 이 책의 주요 인물인 짜라투스트라의 영어 이름은 조로아스터인데, 그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즉 우리에게 배화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종교의 창시자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기독교적 사고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런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의 입을 빌려 니체가 서구의 가치관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다. 이원론적이란 선과 악이 치열하고 극명하게 대립이 된다는 말이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선은 항상 승리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생각해보자면, 왜 니체가 기독교로 딱 막힌 그 사회에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기존의 가치관을 비판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짜라투스트라는 인간이 초극화를 통해 초인이 될 것을 강조하며, 초인이 되는 방향에 대해 방향제시를 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그 유명한 구족 사교계 니체의 말인 "신은 죽었다"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책 한권에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읽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소화시키듯이 꼭꼭 씹어 가듯이 읽다보면 어느 샌가 책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 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공감이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한번 책을 읽으며 스스로 사고해보라. "선배 철학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는 그들의 논리를 깨고 새로운 논리를 세우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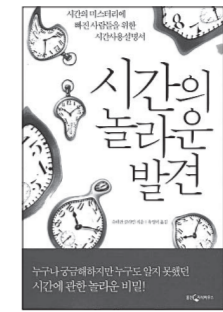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사랑이야기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본다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예상 수명 100세 시대, TV의 보편광고에 흔히 나오는 말이다. 늘어나는 예상연령에 맞춰 계산해보면 어느 수업을 한 교수님의 말에 따라 "우리는 적어도 2명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남은 인생에 몇 명의 연인과 몇 명의 배우자를 만날 생각인가. '안나 카레니나'는 19세기 러시아 귀족사회를 바탕으로 여러 인물들의 사랑과 가정을 다루는 동시에 종교, 죽음 등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안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아름다운 귀족 사교계의 부인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편 카레니나와 아들 세리오자는 안나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부인인양 사교계에 그녀를 비취주고 있다. 하지만 안나와 그녀의 남편 카레니나는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날 이 사랑이 없는 부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장교 브론스키인데, 안나와 브론스키는 곧 사랑에 빠져 둘만의 아이까지 갖는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만나기 전, 결혼을 염두에 두었던 카레니나는 한 여인의 예우는 그들의 논리를 깨고 새로운 논리를 세우는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시간의 미스터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시간사용설명서

스티브 호킹

『시간의 놀라운 발견』

불편한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즐거운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린다. 왜 그런 것일까? 책을 통해 저자 '슈테판 호킹'은 각종 실험을 예시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1962년 7월 16일 프랑스의 지질학자 자미엘 시프리는 고립된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될 경우 시간감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홀로 시계도 없이 남 알프스 빙하 동굴로 내려가게 된다. 계획했던 실험기간이 끝나는 날인 9월 14일 친구들이 나타났고 그는 놀라고 만다. 그가 예측하기론 아직 8월 20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시계가 없는 어둠속에서도 그는 생체시계에 의해 움직였다고 한다. 하루를 24시간 30분 주기로 생활하며 평균 16시간을 깨어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가고, 우리의 몸도 생체시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때로는 느리게 때론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것은 우리의 기분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같은 2시간이지만 일요일은 시간이 너무도 빨리, 월요일은 너무도 느리게 흐른 듯 느껴지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시간 관리법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대신 시간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 때문에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금 시간이 만들어지는 체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우리는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며 새로운 일들을 수 없이 경험해 왔다. 그런 경험들은 처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처음 경험한 일들은 결코 새롭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험들은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기에 시간에 대한 감각이 무뎠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즉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의 경험이 어느 미래에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주어진 매순간의 경험이 새롭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기보다 크리스마스 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으로 앞으로 경험할 일들에 대해 설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윤지은 기자 yoonjoon@hansung.ac.kr

### 한성 권장도서 68선 목록

- 〈문학〉
  1. 연암산문선 / 박지현
  2. 토지 / 박경리
  3. 광장 / 최인훈
  4. 시 읽는 기쁨 1-3 / 정효규
  5. 열하일기 / 김택환
  6. 카인의 후예 / 황순원
  7.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신경숙
  8. 고도를 기다리며 / 사무엘 베케트
  9. 그리스로마신화 / 이윤기
  10. 세익스피어 4대 비극 / 세익스피어
  11. 이오장전 / 루쉰
  12. 어린왕자 / 생텍쥐페리
  13. 노인과 바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14. 무활 / 폴스토이
  15. 돈키호테 / 세르반테스
  16.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 알랭 드 보통
  17. 보바리 부인 / 귀스타브 플로베르
  18. 백년의 고독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9. 1084 / 무라카미 하루키
  20. 위대한 유산 / 찰스 디킨스
  21. 안나 카레니나 / 톨스토이
  22. 꾸비시인의 행복여행 / 프랑수아 홀로르
  23. 라스트 글래스 / A. J. 카진스키
- 〈과학〉
  24. 과학혁명의 구조 / 토머스 S. 쿤
  25. 종의기원 / 찰스 다윈
  26. 카오스 / 제임스 글리크
  27. 통섭 / 에드워드 월슨
  28. 시간의 역사 / 스티브 호킹
  29. 코스모스 / 칼 세이건
  30. 이중나선 / 제임스 왓슨
  31. 자연과학의 세계-2 / 김희준
  32. 과학은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있는가 / 존 브로큰
  33. 피안만해 농담도 잘하시네 / 리처드 피안만
  34. 시간의 놀라운 발견 / 슈테판 호킹
- 〈철학 · 사상 · 역사〉
  35. 육민심서 / 정약중
  36. 발명일지 / 김구
  37. 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38. 간디 자서전 / 간디
  39. 논어 / 공자
  40. 삼국유사 / 일연
  41. 국가 / 플라톤
  42.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프리드리히 니체
  43. 슬픈영웅 /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44. 발명사설 / 데카르트
  45. 고민하는 힘 / 강상중
  46. 산자 정의를 유배지에서 만나다 / 박석우
  47. 군주론 / 니콜로 마키아벨리
  48. 문명의 충돌 / 새뮤얼 헌팅턴
  49.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6 / 유홍준
  50. 모든 타임즈 1-2 / 존 폴슨
  51. 문명과 바다 / 주경철
  52. 책만 보는 바보 / 안소영
  53. 역사의 공간 / 이진경
  54. 역사를 위한 번역 / 마르크 블로크
  55. 국화와 칼 / 루스 베네딕트
- 〈정치 · 경제 · 사회 · 예술〉
  56. 사암미술사 / E. H. 골브리지
  57. 독서학 / 사이트 다카시
  58. 행복의 지도 / 에릭 와이너
  59. 강의 / 신영복
  60. 끝까지 않은 추락 / 조지프 E. 스타글리츠
  61. 불황의 경제학 / 폴 크루그먼
  62. 희망의 방식 / 제임스 굴리
  63. 사고 정리학 / 도미마 시게히코
  64. 한국의 미래 / 오주석
  65. 매일 캐네기 인간관계론 / 대일 캐네기
  66. 사다리 걸쳐가기 / 장하준
  67. 세계화의 빛 / 한스 페터 마르틴
  68. 관철의 힘 / 안철재, 사이먼 슈타인하트

### 학술정보관 7,8월 분야별 다대출 순위

- 〈어학〉
  1. (Hackers) TOEFL Reading / 조, 데이비드
  2. 해커스 토플 실전 1000제 listening / 해커스어학연구소
  3. (Hackers)TOEFL vocabulary / 조, 데이비드
  4. (미드 세븐 소셜 환경으로 끝내는) 영어 모국어화 훈련법 / 최재호
  5. It's TEPS essential / 김경호
  6. (영어회화 학습패턴 233 / 백선영) 영어 모국어화 훈련법 / 최재호
  7. (ETS)TOEIC speaking test 공식문제집 / YBM사
  8. 소생크리칠 / 이일범
  9. 영어회화 핵심패턴 233 / 백선영
  10. (한 달 만에 끝내는) Opc / 언어공학연구소
  11. (KBS 주관)KBS 한국어 능력시험 / 최지영
  12. 한자는 즐겁다 / 박은철
- 〈문학〉
  1. 64 / 요코야마 히데오
  2. 리빙 더 월드 / 케네디, 더글러스
  3. 위대한 개조버 / 피츠제럴드, F. 스콧
  4. 고구려 / 김진명
  5. 궁극의 아이 / 장용민
  6. 텔미션 / 케네디, 더글러스
  7. 천사의 부름 / 위스, 기욤
  8. 7년 후 / 위스, 기욤
  9. (조선의 마지막 황제)덕혜옹주 / 권비영
  10. 내 심장을 쫓아 / 정유정
- 〈사회과학〉
  1. 펀드투자상담가 / 금융투자교육원
  2. 전쟁론 / 클라우제비츠, 카를 폰
  3. 습관의 힘 / 두하끄 찰스
  4. (Unlax coaching)관심 / 유니타브 브랜드
  5.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 마이이 천병기, 빅토르
  6. 뽀하는 자기개서 / 신길자
  7. 나는 세계일주 경력을 배웠다 / 우드먼, 코너
  8.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 윤재수
  9. (외도, 상상 이상의 행복 / 핼퍼, 고든
  10. 충, 군, 쇠 / 다이아몬드, 제러드
- 〈인문과학〉
  1. 여덟 단어 / 박용현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해민
  3. 유대인 이야기 / 홍익희
  4.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 주현성
  5. 천재의 두얼굴, 사이코패스 / 더튼, 케빈
  6. 강산주의(맹목의 철학)당찬인문학 / 강산주
  7. 문재는 무가치하다 / 박석우
  8. (외우지 말고 배우고 이해하는)통제사 / 김성훈
  9. 내일로 가자 / 구자선
  10. 산티아고 가는 길 / 김효선
- 〈자연과학〉
  1. (한문서 배우는)Unity 3D game programming / 김진근
  2. 인드라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 김성형
  3. 코코야 프로그래밍 / 힐리가스, 아론
  4. (후니얼)가게 씬스스코 넷드워킹 / 진강훈
  5. ZBrush와 3ds Max를 이용한 3D 캐릭터 제작기법 / 김성우
  6. (스타트 업)Max 게임 캐릭터 디자인 / 김현
  7. (이론)힐리가스의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 / 힐리가스, 아론
  8. 윤성우의 열혈 자료구조 / 윤성우
  9. (과학으로 보는) 세계 불가사의 / 이종호
  10. 간헐적 단식법 / 모슬러, 마이클
- 〈예술〉
  1. 설국열차 / 로세토, 장 마르크
  2. 우리는 다른 집에 산다 / 소행주
  3. 그림 여행을 권함 / 김민하
  4. 미생 / 윤태호
  5. 동서양 기괴 명화 / 김정복

## 내 영혼을 채워준 책들



클리프 앳킨슨  
『유쾌하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을 부탁해』



이철한  
『위로』

대학에 들어와 많은 PPT발표 수업을 거치며 느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친편일률적인 구성으로 발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모든 시트는 학생의 개인 노트 필기마냥 텍스트로 가득 차 있고 발표자는 그것을 읽어주는 내레이터가 된다. 그런 발표를 할 바에 이 차려진 시트 한 장씩 보여주면서 발표자는 "다 읽으셨으면 넘갑니다 여러분~?"하면서 PPT 스크린 독서회 나 오는 것이 낯지 않았는가? 미국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클리프앳킨슨이 집필한 '프레젠테이션을 부탁해'에서는 BBP(Beyond Bulletin points)라는 보다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소개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글머리와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구시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설명에 힘을 보태줄 이미지와 음성을 이

이 책은 피터라는 나비를 통해 아직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불확실한 현대인들의 문제를 파스하게 바라보며 위로한다. 피터는 여행하면서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만난다.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완전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얻어간다. 수많은 매스컴 속의 자신과는 다르게 화려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는 타인의 삶의 일부의 모습을 접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므로 경쟁에서 뒤쳐진 것 같은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점철된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고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하고 읽는 독자들은 위로를 받는 것과 같은 파스한 느낌을 주는 책이다.

나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용한 발표라는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한다.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검은 목 폴라와 청바지를 걸치고 간단한 이미지지만 띄우며 구두로 제품의 모든 설명을 하던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저자는BBP의 실제 사용 사례와 수많은 표와 자료사진, 단계적인 제작과 적용 방법 등, PPT프로그램의 숙련도와는 관계 없이 쉽게 이해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더 효과적인 발표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한층 더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현(경영2)



한병철  
『피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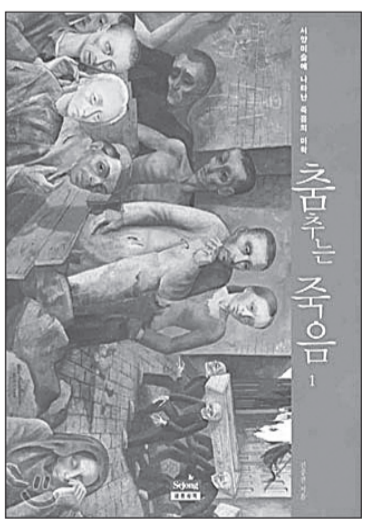
오늘도 새벽부터 밤까지, 교실과 도서관, 학원에서 이른바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을 우리시대의 '피로한'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한권이 있다. 바로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2012 문학과 지성사)이다. 2010년 가을 독일에서 출간되었고 2012년 봄 한국에 소개된 이 책은 현대 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 모두에서 출간되자마자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병철은 오늘날의 삶을 '활동과잉' '긍정성의 과잉'으로 요약하며, 우리시대의 '성과주의'들이 '할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어떻게 자신을 착취하고 소진해가는지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시대의 피로한 성과주의자들 학생들이 잠시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냥 '활동과잉'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 동인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기착취, 자기소진 아닌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남술(무역2)

김영아(교수(언어교육원))

##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라

진중권  
『춤추는 죽음』



누구나 한번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의 죽음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 혹은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죽음, 그 어떤 것이든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게 된다.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일수록 말이다. 하지만 중세는 달랐다. 중세는 오히려 죽음이 곧 축복이자 기쁨이었다. 왜 그랬을까? '춤추는 죽음'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 보여준다. 미술사 시대별로 다양한 도판들과 그에 담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철학까지 두 권의 책에 걸쳐 풀어낸다. 죽음은 삶의 때어놓을 수 없는 일부이다. 언제나 무거웠던 주제인 '죽음'에 대하여 한바탕 춤을 추듯이 유쾌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시경 기자 kyung@hansung.ac.kr

희종이름

검은색으로

문틀여러

—기 드 모파상

# 제28회 한성 문학기상 현상공모

접 수 : 9월 16일(월) ~ 11월 1일(금)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 자유

제출형식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 (5편 이상)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 1별관(우편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 신문사

발 표 : 12월 2일(월)

시상내역 :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 시 - 40만원 및 상패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고 곁봉에 한성문학기상 응모작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은 12월 2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제282호에 게재됩니다.

※ 02) 760-4186 (신문사) / 010-3406-2237 (정시경 부편집국장)